복식문화연구
제 8 권 제 3 호 436~449 (2000)

1990년대 후반 그로테스크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 메이크업 광고와 컬렉션을 중심으로 -

張 美 淑 · 楊 淑 喜*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The Grotesque Make-up in the Late 1990's
– Focused on Make-up Advertisements and Collections –

Mee-Sook Chang and Sook-Hi Yang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e inquired social and cultural significance of the Grotesque phenomenon in the late 1990's make-up, as well as its experimentalism and avantgardism. The Grotesque is the aesthetic concept, which is composed of ambivalent structure of humor and horror, interest and disgust through join of heterogenous factors, distortion, extreme and overstatement in the patterns and materials of make-up. The Grotesque in the modern make-up is represented in the make-up advertisements and collections. In this paper, the author classified the Grotesque phenomenon with the Kitsch, the Machine, the Animal and the Devil, focused on heterogenous factor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Kitsch in the make-up uses not cosmetics but imitations, ready-made goods, and ordinary materials. It expresses modern culture's laziness through shocking self-expression.
2. The Machine in the make-up means silver or white color's make-up, and represents cyber period's arrival through contrary irony, loss of the human value and the personifications of machine. At the same time, it is understood as the curing of human alinetion.
3. The Animal in the make-up utilizes the wild animal's horn, the reptiles' sputum, and the legend's animal. It points out a human false virtual image, and overturns make-up's traditional aesthetic concept.
4. The Devil in the make-up shows vampire's cuspid, demon's horn, artificial nail, and black color's make-up. It raises social irrationality and discrepancy of capitalism, and expresses paradoxically the nature of human life.

The Grotesque Make-up expresses the creator's innovation, anxiety of fin-de-siècle, and simultaneously criticizes and cures confused reality. It shows also avantgarde implementation of dissolution of traditional aesthetic concept and acceptance ugliness.

key words : grotesque make-up, kitsch, machine, animal, devil.

Ⅰ. 서 론

1990년대 후반, 세기말의 시대적 불안과 데카당스(Decadence), 니힐리즘 (Nihilism)의 문화가 전면화됨에 따라, 기존의 무겁고 진지한 담론들은 조롱과 가치전복의 대상이 되어 우스꽝스럽게 희화되거나, 혐오스러운 이미지를 통해 사회적 혼란을 반영하여 왔다. 이러한 예술정신과 표현방식들 가운데 특히 그로테스크 (Grotesque)는 과장되고 희극적이면서도 한편으로 기괴하고 불쾌한 이미지로 평범한 것에 무감각한 현대인에게 시각적 충격을 유발하고, 사회전반에 만연한 심리적 부조화와 소외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그로테스크는 이질적 요소의 결합, 왜곡, 극단, 과장을 통한 일련의 부조화, 불일치적 현상을 통해 웃음과 공포, 재미와 혐오를 동시에 유발하는 양면적인 모순 구조로 이루어진 미개념으로서, 오늘날 문화예술 전반에서 세상을 거짓 없이 새롭게 표현하는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추 (醜)를 미적 범주로 수용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미적 가치전환은 인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외적 형식인 메이크업에서도 나타나 무한한 다양성과 실험성이라는 미명하에 이제까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논자는 1990년대 후반 메이크업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현상을 고찰하기 위하여 그로테스크의 일반적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그로테스크 메이크업을 역사적 측면에서 고찰한 후, 이를 바탕으로 현대 메이크업에서 두드러지게 사용되고 있는 이질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그로테스크 현상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그로테스크 메이크업의 흐름을 선도하고 있는 메이크업 광고와 디자이너 컬렉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메이크업 자체의 실험성 · 전위성뿐만 아니라, 사회 · 문화 · 예술적 측면에서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사회 · 문화, 복식, 메이크업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자료, 신문기사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특히 1990년대 후반 국내외 패션잡지 (Collections, Accessary Collezioni, VOGUE)에 실린 메이크업 광고와 디자이너 컬렉션의 작품사진을 시각자료로 제시하였다.

Ⅱ. 그로테스크의 개념과 특성

1. 그로테스크의 개념

그로테스크는 서구에서 로마문화의 초기 기독교 시대에 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예술양식으로, 하나의 그림 속에 인간적 요소와 동식물적 요소들이 정교하게 한데 얽혀 결합되어 나타난 끔직하거나 무시무시한 장식미술을 의미했다[1].

그로스테크라는 말이 문학과 비미술 분야로까지 확대된 것은 프랑스의 경우 16세기, 영국과 독일의 경우 18세기이며, 특히 이 용어가 캐리커추어 (caricature, 풍자적 희화)와 관련됨으로써 우스꽝스러운, 뒤틀그러진, 부자연스러운, 부조리, 자연의 왜곡 등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신고전주의 시대에는 무절제, 환상, 개인적 취향, 유기체의 자연스러운 상태의 거부와 같은 그로테스크의 특징들이 조롱과 배격의 대상이 되었고[2] 걷잡을 수 없이 격한 부조화의 조잡한 형태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낭만주의 시대에 이르러 그로테스크에 내재된 웃음과 공포, 현실과 비현실의 결합이란 양면성을 지닌 그로테스크의 미학적 정당성과 가능성에 대한 탐색이 전개되었고[3], 특히 프리드리히 슐레겔 (Friedrich Schlegel)과 장 파울 (Jean Paul)은 심연과 유쾌한 것 내지는 유희와 진지함, 희극성과 비극성의 결합[4]으로서 그로테스크의 양면성을 보다 종합적인 시각으로 인식하였다.

20세기에 이르러 1957년 독일 비평가 볼프강 카이저 (Wolfgang Kaiser)가 『예술과 문학에서의 그로테스크』를 출간함으로써 그로테스크는 비로소 미학

1) Philip Thomson, *The Grotesque*, 김영무 역,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p. 17.
2) *ibid.*, p. 18.
3) 이정후,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나타난 불확정성,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p. 115.
4) 박재현, 프리드리히 뒤렌마트의 소설 『고장』에 나타난 카니발적 그로테스크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p. 8.

적 분석과 비평적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5]. 그는 그로테스크의 형태를 분리된 영역의 혼합 속에서 정적인 것의 파괴, 동일성의 상실, 자연스러운 균형의 파괴, 물질계의 붕괴, 질서의 해체, 개성적 개념의 파괴, 역사적 순리의 분열 등으로 규정하고, 그로테스크의 구조를 무서운 것과 우스운 것의 이중적 모순으로 보았다[6]. 이로부터 그로테스크를 양면적인 것, 대립적인 것들의 격렬한 충돌, 존재의 근원적·문제적 성격에 대한 적절한 표현으로 보려는 시각이 확산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필립 톰슨 (Philip Thomson)은 부조화, 희극적인 것과 끔찍스러운 것, 극단과 과장, 비정상성, 부조리, 캐리커추어, 패러디, 풍자, 아이러니 개념과의 상관성을 통해 그로테스크를 총체적으로 인식하고자 하였다.

로슨 루이스 (Lawson A. Lewis)[7]는 그로테스크를 'a mod of illusion'이라 정의하면서 이러한 그로테스크의 양면성이 현대사회를 비판하기 위해 사용됨을 지적하고, 아서 클레이버러 (Arthur Clayborough)[8]는 융 (Jung)의 심리학을 이용하여 그로테스크를 분석하면서, 현실과 관련시켜 기이하고 혼란스러운 것이지만 타당성 있고 현실적인 새로운 관점에서 실제 세계를 새롭게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로테스크의 기능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우리는 그로테스크를 통해 이성과 권위, 질서의 규제에서 벗어난 감정의 도약과 신비를 경험함으로써 심리적 자유를 누리게 된다.

따라서 그로테스크가 신랄한 비판이 요구되는 혼란한 사회와 시대에 독세하여[9] 상실된 조화의 표현, 사회적 혼돈과 무질서의 징후로 나타난다[10]고 볼 때, 가치의 전복, 모든 장르와 질서의 해체로 규정되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그로테스크에 대한 화두는 필연적인 듯하다.

지금까지 연구되어온 그로테스크의 개념들을 종합한 크리스찬 톰젠 (Christian W. Thomsen)[11]에 따르면, 그로테스크는 이질적인 부분들 (식물적인 것, 동물적인 것, 인간적인 것, 메카니즘적인 것, 기계적인 것)이 새롭고 독자적인 단일체로 혼합되거나 융합되어 이미 인정된 규범들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무효화시키거나 전도시키고, 의식적으로 기대영역에 환멸을 느끼게 한다고 한다. 따라서 그로테스크는 지각자로 하여금 당황과 불안, 충격을 주어 비평적인 생각을 하도록 자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간과 동물, 무생물, 악마적 요소 등의 결합에 의한 형식과 소재의 두드러진 대조, 이질적 요소들의 융화되지 않은 혼합 등을 통해 메이크업 기존의 이상적인 미 관념을 전도시키고, 놀라움과 환멸감을 느끼게 하여 미를 둘러싼 예술 뿐 아니라 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일련의 비평적인 생각을 하도록 하는 현상을 메이크업에서의 그로테스크 현상으로 보았다.

2. 그로테스크의 특성

논자는 그로테스크의 현대적 정의를 시도한 필립 톰슨 (Philip Thomson)의 분류를 바탕으로 하여 그로테스크의 특성을 부조화성, 비정상성, 극단과 과장, 웃음과 공포로 상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그로테스크의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부조화성

그로테스크의 가장 큰 특징인 부조화는 갈등, 충돌, 이질적인 것의 혼합, 혹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들의 서로 어울리지 않는 융합 등을 말한다. 이러한 부조화는 작품 자체, 작품이 유발하는 반응과 예술가의 창조적 기질, 심리적 구조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12].

5) Philip Thomson, *op., cit.*, p. 14.
6) 김선호, <Der Besuch der alten Dame>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의 기법,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p. 6.
7) Lawson A. Lewis, *The Grotesque in Recent Southern Fiction*, (Ann Arbor: UMI, 1964), p. 249.
8) Clayborough, Arthur, *The Grotesque in English Literature*, (Oxford: Clarendon, 1965).
9) Philip Thomson, *op., cit.*, p. 14.
10) 이정후, *op., cit.*, p. 116.
11) C.W. Thomsen, *Das Groteske in enslischen Roman des 18, Jahrhunderts*, Erscheinungsformen und Funktionen, Darmstadt, 1974, s. 11.
12) Philip Thomson, *op., cit.*, p. 27.

2) 비정상성

비정상성이란 정상상태를 벗어난 부자연스러움의 특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한편으로는 우습고 (일상적인 용례속에서 우스운이라는 말은 '재미있는'과 '어상한'을 동시에 의미한다) 또 한편으로는 무섭거나 역겨울 수도 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기쁨과 정상적인 것에서 벗어난 것에서 맛보는 재미는 일단 비정상의 정도가 일정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 친숙하지 않은 미지의 것에 대한 공포로 바뀐다. 공인된 기준과 규범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 느끼는 쾌감은 이러한 규범들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거나 공격을 당했다고 여겨지면 곧 공포가 된다[13]. 필립 톰슨 (Philip Thomson)은 이러한 양면적 체험 즉, 재미와 혐오, 웃음과 공포, 유쾌함과 불쾌함을 동시에 체험하는 것을 비정상적인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았다.

그로테스크의 근본적인 비정상성과 그 비정상이 표현되는 직접적이고 과격한 방식 때문에 그로테스크는 저속하고 거칠고, 예의범절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며, '사실'과 '정상'에 대한 모독이라든지 도덕적 색채가 감소된 멋없고 쓸데 없는 왜곡, 억지스럽고 무의미한 과장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14]. 그러나 비정상성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균형의 파괴는 패러독스한 개념으로서, 이는 오히려 구체적인 표현이고, 구체적인 역설이며, 무형상의 형상, 표정없는 세계의 표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15].

3) 극단과 과장

그로테스크는 정상적인 것을 벗어난 것이고, 그것의 두드러진 특징은 극단과 과장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빅토르 위고 (Victor Hugo)[16]와 체스터튼 (Chesterton)은 그로테스크한 세계가 공상적인 것과 친화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는 그 자체로서가 아닌 현실과의 뒤얽힘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보았다.

토마스 만 (Thomas Mann)[17]은 그로테스크는 극단적인 참이며, 철저하게 현실적인 것이며, 자의, 오류, 반현실,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는 극단적인 왜곡과 과장을 통한 공상적인 세계의 표현으로 현실을 더욱 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프리드리히 뒤렌마트 (Fredrich Dürrenmatt)[18]는 그로테스크적인 요소를 극단적인 표현양식, 돌발적으로 실상을 드러내 보여 주는 현대예술의 일반적인 경향이라 정의하고, 이로 인해 경향성을 지닌 문학이나 보도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대문제, 더 나아가서 현재를 포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로테스크의 이러한 특성은 문학예술 전반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원천으로 작용해서 예술의 한 분야인 메이크업에서도 그로테스크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적 가치를 둘러싼 시대적, 사회적 문제들을 가늠해 볼 수 있다.

4) 웃음과 공포

그로테스크는 항상 웃음, 공포와 연관되어 논해져 왔으나, 그로테스크를 이들의 혼합형식으로 보려는 경향은 비교적 최근의 것이다[19]. 그로테스크의 웃음은 그 자체에 신랄함이 뒤섞여 있으며, 그로테스크로 변화하면서 경멸적이고 조롱적이고 마침내는 악마적인 웃음의 특성을 갖게 된다[20]. 결국 웃음은 공포가 되며, 이는 혼란스러운 현실세계에 대한 반응으로서 본능적이고 자위적인 심리라고 할 수 있다.

Ⅲ. 메이크업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1. 그로테스크 메이크업의 역사적 고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아름다움을 추구해 왔으며, 이는 메이크업의 변형과 발전에

13) *ibid.*, p. 33.
14) *ibid.*, p. 36.
15) Arnold Heidsieck: *Das Groteske und das Absurde im modernen Drama*, Kohlhammer, s.17을 김선호, *op., cit.*, p. 7에서 재인용.
16) Philip Thomson, *op., cit.*, p. 18.
17) 이혜림, Thomas Mann의 초기단편에 나타난 그로테스크현상,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p. 5.
18) 박재현, *op., cit.*, p. 3.
19) Philip Thomson, *op., cit.*, p. 28.
20) 이정후, *op., cit.*, p. 116.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각 시대마다의 미적 가치기준에 따라 메이크업이 행해졌지만, 시간의 흐름은 유행과의 단절을 초래하여 그로테스크한 효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로테스크 메이크업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성들의 과도한 메이크업은 오늘날 성의 부조화적 측면에서 그로테스크하다고 받아들여진다. 남성들은 희고 아름다운 피부를 가꾸기 위해 냉수욕, 온수욕, 약물욕 등을 하거나 얼굴과 목, 어깨, 팔에 백납분을 칠하였으며, 마사지와 향으로 정력적이고 번지르르하게 보이는 것이 유행하였는데, 이의 사용이 지나쳐 막대한 양의 향료원료가 해외에서 수입되자, 고대 아테네의 법률가 솔론 (Solon)은 향수판매 금지법을 내놓기도 하였다[21].

중세 시대에는 여성들이 피부를 희게 가꾸고, 상아처럼 빛나는 희고 넓은 이마를 이상적으로 여겨 앞머리를 뽑거나 밀었고, 눈썹을 뽑고 가늘게 그려서 그러한 효과를 배가시켰다 (그림 1). 특히 더욱 희고 투명한 피부의 표현을 위해 백납분을 바르고 그 위에 청색의 핏줄을 인위적으로 그려주거나 광택나는 안료를 덧발라 얼굴 안면의 움직임이나 표정이 불가능할 정도였으며[22] 메이크업 전후의 모습이 서로 다른 사람으로 보일 정도였다. 인체의 왜곡된 표현을 통해서라도 미를 추구하고자 하였던 중세인들의 메이크업에서 비정상적인 그로테스크한 일면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19세기 이후 여성만의 전유물이 되었던 메이크업은 20세기 중반 페미니즘 운동과 히피, 펑크, 동성애 문화 등 일련의 하위문화를 통해 남녀 모두에게 다시 행해졌다. 그들의 메이크업은 반문화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정치적 저항의 암호로서 이용되었고, 특히 1970년대 후반 런던에서 시작된 펑크는 기존의 아름다움에 반기를 들어 머리와 얼굴에 문신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스타일들을 절충하면서 충격과 놀라움, 혐오스러움을 불러 일으켰다.

이들의 그로테스크한 메이크업은 기존의 정형화된 화장법을 거부한 것으로, 메이크업에서는 잘 행해지지 않았던 검은 입술화장, 검정이나 흰색의 매니큐어, 검정·노랑·흰색의 볼터치 등 검은 색을

<그림 1> 중세 메이크업 「서양복식문화사」, p. 254.

<그림 2> 펑크 「*Street Style*」, p. 89.

사용해 죽음, 절망, 공포, 공허를 표현하는 허무주의, 히스테리, 폭력, 그리고 앤드로지너스 룩 (Androgynous Look)을 극적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2).

또한 일반적인 금기사항이었던 동성애 문화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존재를

21) 조은별, 20세기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p. 10.
22) John Ligget, *The Human Face*, (New York: Stein and Day, 1974), p. 51.

<그림 3> '95 WIGSTOCK

인식시키기 위하여 동성애자들은 거리로 나섰다. 가장 대규모로 열리는 동성애 문화축제는 1985년 부터 매해 개최되고 있는 윅스탁 (WIGSTOCK)으로, 이 행사에 참가하는 게이나 레즈비언들은 인위적으로 과장된 메이크업과 기괴한 의상, 악세서리로 재미와 혐오를 동시에 유발하는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를 자아낸다 (그림 3).

이러한 기존 관념과 현실세계에 대한 반항은 극단적이고 과장된 스타일과 강렬한 색채를 통한 그로테스크 메이크업으로 나타났으며, 세기말과 함께 밀레니엄의 종말을 맞는 1990년대 후반의 시점에서 하나의 메이크업 경향으로 대두되었다.

2. 1990년대 후반 메이크업의 그로테스크 현상

20세기 메이크업 문화는 일반적으로 여성신체의 일부에 색과 향을 부여함으로써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으로, 각 시대의 이상적인 미의 기준에 따라 미미한 변화는 있어 왔으나, 일반적으로 여성스럽고 또렷한 인상, 매력적인 얼굴을 창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메이크업과 상관없는 이질적인 요소들이 도입되면서 아름다움보다는 희극적이면서도 혐오스러운 이미지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는 세기말과 새로운 밀레니엄으로 이어지는 혼란한 현실세계에 대한 불안과 기대감을 반영한 그로테스크 현상으로써, 특히 새로운 충격을 원하는 대중의 욕구와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크리에이터들의 의도가 부합된 메이크업 광고와 컬렉션이 그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중심으로 1990년대 후반 메이크업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현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 논자는 최근 메이크업에 도입되어 신체의 왜곡, 과장, 극단을 통해 일련의 불일치, 부조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이질적 요소에 주목하고, 크리스찬 톰젠 (Christian W. Thomsen)의 분류 (II장 참조)를 참조하여 키치적 요소, 기계적 요소, 동물적 요소, 악마적 요소로 나누어 현대 메이크업의 그로테스크 현상을 살펴보았다.

1) 키치적 요소

키치 (Kitsch)는 저속한 작품, 천박한 잡동사니의 예술 쓰레기 혹은 문학 쓰레기라는 허위예술로서 대중적 취향에 부합하는 질적으로 저속하고 값싼 예술작품을 의미한다[23]. 이는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더니즘의 미학적 대중주의하에서 미적 부적절성의 개념을 함축한 중요한 창조전략으로 작용하여 하나의 지배적인 문화현상으로 부상하였다.

키치는 대량소비를 위해 고안된 대중위락적 예술이기 때문에, 순수 예술뿐 아니라 광범위한 응용예술 전반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특히 패션분야에서의 키치는 고상한 취미의 품위있는 패션에 대한 반대 현상으로서, 이를테면 전통에 대한 거부감의 표현으로 자극적이고 저속한 색채와 산만하고 값싼 소재 등을 사용하여 현대 문명의 나태함을 충격적인 자기표현으로 나타내었다[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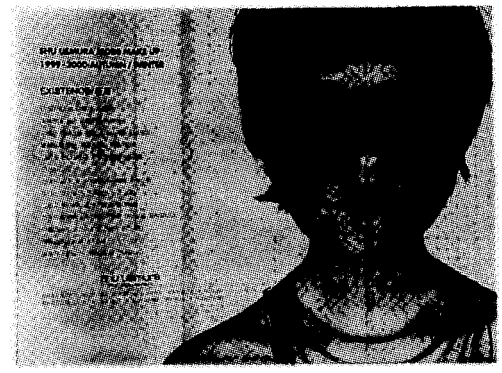
이러한 현상은 메이크업에서도 나타나 화장품이 아닌 모조품, 기성품, 그리고 일상적인 소재 등 키치 오브제를 이용해 메이크업함으로써, 이질적 요소와의 결합을 통한 부조화와 유치함으로 웃음을 유발한다.

23) 서승미, 현대 키치이미지 패션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p. 4.
24) *ibid.*, p. 5.

<그림 4> Thierry Mugler, '95 A/W 「*Style Surfing*」, p. 117. 「*Accessary Collezioni*」, p. 281.

<그림 5> J.P.Gaultier, '97-98 A/W 「Vogue Korea」, 1998, 9, p. 48.

<그림 4>는 '95 A/W 티에리 뮈글러 (Thierry Mugler)



<그림 6> SHU UEMURA 광고 비쥬얼

의 작품이다. 아이펜슬 또는 아이섀도우를 이용하여 눈썹을 그리는 대신 메이크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검은 종이를 잘라 붙임으로써 이질적 요소에 의한 그로테스크 현상을 보여 준다.

또한 '97 A/W 장 폴 고티에 꾸띄르 (Jean-Paul Gaultier Couture)에서는 랑콤의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프레드 파루지아 (Fred Farugia)가 일상적인 장식 소재인 레이스 (Lace)를 도입함으로써 메이크업 대신 문신같은 프린트 형태를 만들어 내었다 (그림 5). 이는 메이크업 소재의 부조화를 통해 인체를 왜곡하고 전통적인 미관념을 전복시키고 있다.

<그림 6>은 슈우에무라 (SHU UEMURA)의 '99/00 A/W 메이크업 패턴이다. 일상적 소재 즉, 수세기 동안 변화되지 않는 자연스러운 벽돌, 돌담의 이미지를 도입하여 인디고톤이 감도는 프레스코화 (fresco)[25]를 연상시키고 있다. 『존재』 (EXISTENCE)라는 컨셉을 바탕으로, 눈과 눈썹, 양볼에 강한 기운을 불어넣어 21세기의 당당한 여성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극단적인 피부표현과 왜곡된 여성미를 보여줌으로써 일종의 아티스틱 메이크업 (Artistic Make-up)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인간과 사물의 미분화된 세계를 통해 메이크업에서의 그로테스크 현상을 인지할 수 있다.

키치는 모든 사회·문화·예술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현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서 대중문화와의 연계를 통해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메이크업에 사용된 키치적 요소는 고상하고 세련된 메이크업에 식상한 대중에게 상당히 어필할 것으로 예상

25) 벽이나 천장 따위에 칠한 회반죽이 마르기 전에 수채로 그리는 화법.

<그림 7> MAQUILLAGE PRINTEMPS/ÉTÉ 광고 비쥬얼, '99 S/S

<그림 8> Phillip Treacy, '99 A/W 「*FASHION NEWS*」, 1999, 5, p. 56.

된다.

2) 기계적 요소

기계문명의 역사에 있어서 산업혁명은 경제사적 단계에서 볼 때 그 혁명성이 인정되나, 산업혁명에 대한 재현이라는 문화사적 단계에서는 인간을 열등한 기계의 부품으로 변화시키는 비인간화를 수반한다는 의미에서 비판적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산업이 하이테크화되고 인간생활의 편리성이 강조될수록 인간과 기계와의 관계는 더욱 밀접해지며 특히 고도의 기술집적으로 이루어진 컴퓨터는 우리의 실생활 전반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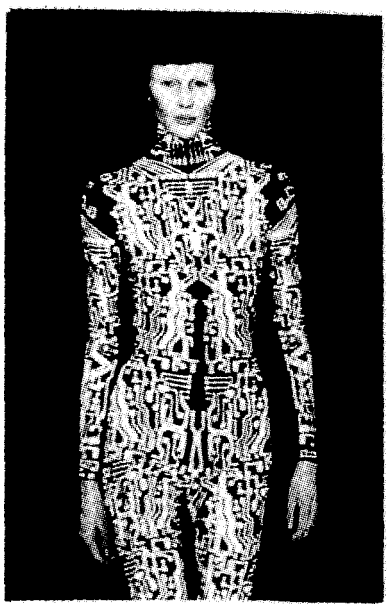
1968년 영국 미술 협회에서 사이버네틱스 (cybernetics)에 관한 전람회를 시작으로 예술과 컴퓨터의 연계적 가능성을 보여 주는 사이버 펑크는 그로테스크의 거친 상상력에 의한 산물로서 받아들여지며[26] 이러한 일련의 사이버 문화는 의상과 메이크업을 들러싼 패션현상에도 커다란 담론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미의식을 고양하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시각을 전달한다.

특히 메이크업에서의 기계주의는 인조인간과 같은 미래적 이미지를 전달하는 실버 또는 화이트 칼라의 메이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얼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의상 소품을 통해서 기계적인 이미지를 배가시키고 있다.

<그림 7>은 마뀌아쥬 쁘렝땅 에떼 (MAQUILLAGE PRINTEMPS/ÉTÉ)의 '99 S/S 메이크업 광고 비쥬얼로서, 「COSMOFLASH」라는 컨셉을 바탕으로, 눈에 그린 별모양과 반짝이가 가미된 립스틱을 통해 우주적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그림 8>은 '99 A/W 필립 트레이시 (Phillip Treacy) 컬렉션에서의 메이크업으로, 피부와 입술은 메이크업을 거의 하지 않고, 수은 광택의 실버 칼라로 불완전한 반쪽 메이크업을 시도하였다. 이는 재미와 혐오라는 양면성의 충돌로 그로테스크를 유발한다.

GIVENCHY의 '99/00 A/W 컬렉션 (그림 9)에서는, 컴퓨터 회로 야광 프린트의 미래적 재킷과 함께 핏기없는 차가운 얼굴로 메이크업하였다. 모델의 무표정한 얼굴은 기계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고 기계적 냉기를 느끼게 한다. 한편, '99 A/W 이상봉 컬렉션에서 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화이트 아이 메이크업 (eye make-up)과 비닐소재와 같이 빛나는 글로시

26) 최정화, 현대 패션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복식 40호, 1998, 9, p.157.



<그림 9> GIVENCHY, '99-00 A/W 「*gap-D*」, 1999, 10, p. 77.

<그림 10> 이상봉, '99 A/W 「*Vogue Korea*」, 1999, 6, p. 239.

(glossy)한 립 메이크업 (lip make-up)은 메탈과 플라스틱 바디, 플라스틱 헤드폰 등의 의상과 함께 인체와 테크놀로지의 이질적인 결합을 보여 준다 (그림 10). 이는 인간존재의 가치상실과 기계의 인격화라는 상반된 아이러니를 통해 그로테스크를 표현하고 있다.

현대 예술가에게 있어서 미적 쾌락은 이처럼 인간적인 요소에 대한 비인간적인 요소의 승리에서 나온다[27]. 영화 <바이센테니얼 맨 (Bicentennial Man)>[28]에서 처럼, 오늘날 기계에 감정을 부여하여 묘사하는 경향은 비인간이라는 극화를 통해 인간성을 강조하는 격앙된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메이크업에서 사용된 기계적 요소는 인터넷을 매개로 한 사이버 시대의 도래를 표현하는 동시에 인간의 소외를 지적하고, 치유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

3) 동물적 요소

동물은 두려움의 대상이자, 삶의 필수요건 (양식, 의복, 공구 등)으로서 인류와 함께 공존해 왔다. 이들은 자연현상 특히 기후변화에 매우 민감하여 인간이 느끼지 못하는 천재지변을 예감하고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고대인들은 동물에 대한 경외심이 강하였고 이들을 신성시 해 왔다.

인간과 동물과의 유기적 관계는 문학·예술 측면에서 볼 때, 동물의 의인화가 빈번하다는 사실에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동물의 의인화, 인격화는 우회적으로 인간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인상적인 비유를 통해 대중을 설득하는 기능을 가진다.

최근 메이크업에서는 동물적 요소가 가미된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림 11>, <그림 12>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프레드 파루지아 (Fred Farugia)가

27)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 예술의 비인간화, 박상규 역, (서울: 미진사, 1988), pp. 69-70.

28) 한국에서 2000년 1월 29일 개봉된 영화 <바이센테니얼 맨>은 크리스 콜럼버스 감독, 로빈 윌리암스 주연의, '사람이 되고 싶은 인조인간'에 대한 이야기이다. 울 수 없는 인조인간의 절망을 통해 인간이 비록 '독특하고 불완전한 모순덩어리'이지만 눈물과 죽음 또한 인간이기에 얻을 수 있는 축복이고, 비이성적 대화야말로 인간적 대화이며, '틀린 일을 하는 것이 바른 일 (do the wrong thing is right thing)'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http://cinema.chosun.com).

<그림 11> L'ORÉAL 광고 비쥬얼

<그림 12> L'ORÉAL 광고 비쥬얼

완성시킨 로레알 (L'ORÉAL)의 광고 비주얼로, 인간과 야생 동물의 이미지, 끈적끈적한 타액을 뒤집어 쓴 파충류의 이미지 결합은 부조화, 불일치, 비정상적인 특성으로 인해 놀라움과 혐오스러움을 느끼게 하며, 메이크업에서 기대되는 아름답고 숭고한 미를

<그림 13> Yves Saint Laurent 광고 비쥬얼

파괴하고, 추[29]의 미학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프랑스의 메이크업 브랜드 이브생로랑 (Yves Saint Laurent)은 2000 S/S 메이크업 패턴으로 '사하라' (그림 13)를 발표하고, 푸른색 아이섀도우로 눈의 위아래를 또렷하게 강조하여 스핑크스처럼 강하고 신비스러우면서도 이국적인 매력을 풍긴다. 이브생로랑의 메이크업 디렉터 테리 귄즈뷔르 (Terry de Gunsburg)는 "사하라 사막의 여성들이 차도르를 쓰고 눈만 내놓는 모습에서 영감을 얻어 창조해 냈다"고 설명한다[30]. 사자의 몸에 인간의 머리를 한 이집트 전설 속의 동물, 스핑크스는 신비한 힘과 예지, 동물적 본능과 인간의 정신을 동시에 지닌 마력으로, 그로테스크한 메이크업을 탄생시키고 있다.

'97 A/W 컬렉션에서 월터 반 베이렌딩크 (Walter Van Beirendonck)는 자기 자신이 공룡으로 분장하고 직접 출연한 퍼포먼스를 연출하였다. 머리 윗부분은 사람이고, 머리 아랫부분은 공룡으로 분한 형상은 그로테스크 예술의 초기 작품에서 보여지는 반인반수 (半人半獸)의 형태가 메이크업에 재등장한 것으로, 동물의 원초적 본능을 드러내어 신비롭고, 야수적인 동물의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가식적인 허상을 지적하고, 아름다움의 대명사로 통하는 메이크업을 새로운 관점에서 사고할 수 있도록 해 준다.

29) Otto F. Best는 그로테스크를 추 (醜)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신창규, 뒤렌마트 희극의 근본구조로서의 그로테스크,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p. 16).

30) 동아일보, 1999, 12, 19.

2000년 A/W 홍콩패션위크에서는 특히 환경과 패션디자인과의 접목을 시도하였는데, 이 행사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신인 디자이너 컬렉션 2000'에서 말레이지아의 멜린다 루이 (Melinda Looi)는 의상과 조화를 이루어 불소탤을 사용하여 야생동물의 이미지를 통해 환경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동물적 요소가 의상과 메이크업을 들러싼 패션산업에 접목되고 있는 것은 점차 인간에 의해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그 안에서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는 야생동물들의 현실을 통해 본질적으로 인간의 존재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메이크업에서의 동물적 요소는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섬뜩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그로테스크한 표현을 통해 부정적인 현실, 막다른 골목에 놓인 인간의 총체성을 긍정적으로 치유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4) 악마적 요소

'세기말 (fin de sie' cle)'이라는 개념은 원래 19세기 말 유럽문명의 위기에 대한 문화적 · 내면적 체험을 표현하던 것으로, 이는 20세기말 다시 대두되어 그 시대적 불안과 데카당스, 니힐리즘의 문화가 전면화 되었다.

공허, 무, 혼돈 등은 신화에서 악마와 연관되는 대표적인 상징이다[31]. 따라서 세기말의 문화적 불안이 가장 잘 표명되는 것이 악마가 등장하는 대중문화의 공포물 장르로 볼 수 있으며, 19세기 말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에서부터 20세기 말 <에일리언>, <X 파일>,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등에 이르기 까지 괴물과 뱀파이어 등을 주인공으로 한 공포물들은 그 시대적 · 사회적 모순과 불안을 표현하는 문화형식으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대중문화의 하나인 헐리우드의 영화 대부분이 선과 악의 대결구도를 이루고 있고, 특히 공포물 영역에서 인간은 선으로, 괴물이나 뱀파이어는 악으로 묘사되고 있다.

악의 기원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악이 존재하여 인간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생각이고, 둘째는 신이 인간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생긴 결함에 의해 생긴 불완전한 피조물이 악이라는 것이며, 셋째는 근대 종교의 구원관과 밀접하게 결합되면서 종말과 구원이라는 개념을 도출해 내었다. 종말과 구원은 인간의 잘못을 추궁하고 이를 원상태로 돌려 놓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악의 기원이 인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선악의 판별이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고 악으로부터 고통받는 것도 결국 인간이기 때문이다[32].

뱀파이어 연구자 리리엘 맥마흔은 뱀파이어의 시대적 의미가 변화하여 초기에는 흥착하고 지저분한 짐승이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뱀파이어를 아주 감상적이고 사색적이며, 심지어 철학적으로까지 여기게 되었으며, 현대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살아가는, 말하자면 기업형 뱀파이어로 그 의미구조가 변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33].

크리스토프 마틴 뷔란트 (Christoph Martin Wieland)[34]는 그로테스크와 괴물을 함께 언급하여 그로테스크의 악마적 특성을 짐작하게 하는데, 문화예술 영역에서 보여지는 그로테스크 현상은 혐오스러운 악마를 통해 시대적, 사회적 부조리와 자본주의의 모순을 부각시키고 인간 삶의 본질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메이크업에서는 송곳니, 불멸성, 죽음의 경험, 병에 대한 면역성, 초능력과 힘, 그리고 몸에서 퍼져 나오는 신비로운 광선 등을 특징으로 하는 뱀파이어의 이미지가 도입되어 초현실적인 메이크업을 창조하고 있다.

<그림 14>는 '99 지방시 (GIVENCY)의 코스메틱 광고이다. 전체적인 칼라를 흑백으로 하여 핏기없는 뱀파이어를 이미지화하고, 입술과 립스틱만을 레드 칼라로 표현하여 송곳니를 이용한 뱀파이어의 흡혈행위를 연상시킴으로써 레드 립스틱을 강조한다. 『미래를 위한 새로운 욕망』이라는 광고카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메이크업 현상은 새롭고, 쇼킹

31) 이경덕, 신화로 보는 악과 악마, (서울: 동연, 1999), p. 151.
32) *ibid.*, pp. 15-21.
33) Jeff Guinn, Andy Grieser, 살아 있는 뱀파이어를 찾아서, 조미옥 역, (경기: 엘테크, 1998), p. 38, 43.
34) 박재현, *op., cit.*, p.8.

<그림 14> GIVENCHY 광고 비쥬얼

<그림 15> ANNA SUI 광고 비쥬얼

하고,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대중의 욕구와 부합되면서 대담한 표현방식들을 거침없이 제시하고 있다.

<그림 15>는 '99 안나 수이 (ANNA SUI)의 향수 광고이다. 머리에 난 뿔 (Horn)은 악마의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이는 성경에서 음란한 신으로 언급하고

<그림 16> Tristin Weber, '98 A/W 「*Vogue Korea*」, 1998, 9, p. 93.

있는 바알 (Baal) 신의 마크로로서, 고대 이방 종교를 숭배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35]. 또한 검정색 매니큐어를 통해 죽음, 위험, 악, 무가치, 반항의 퇴폐적이고 신비로운 이미지를 연출한다.

패션 디자이너 트리스틴 웨버 (Tristin Weber)는 '98 A/W 컬렉션의 테마로 땅, 물, 공기, 불의 4원소를 선택하고, 고대 연금술의 영적 요소들과 결합시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였으며, 여기서 보여 준 검정색 의상과 대조적인 하얀 얼굴, 검정색 입술과 사나운 눈꼬리, 길게 단 보라색 인조손톱 등은 사자 (死者)의 영혼을 부르는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림 16).

공포물이 혼란하고 부정적인 현실을 비판하고 그것을 치유하려는 욕망에서 탄생하듯이[36], 그로테스크한 현대 메이크업의 공포미학은 미와 추를 둘러싼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여는 한편, 데카당스, 니힐리즘의 세기말적 현상을 고발하고, 끊기없는 뱀파이어를 통해 인간성을 더욱 극화시킴으로써 인간의 총체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미로 분석된다.

<표 1>은 이상에서 살펴본 메이크업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현상을 도식화하여 정리한 것이다.

35) Bob Larson, 록음악의 사탄적 현상, 주홍근 · 이종전 역, (서울: 예루살렘, 1989), p. 5.
36) 주은우, 『세기말의 공포대중문화, 그리고 <X파일>, 불가해한 세계의 은유』, *REVIEW 10*, 1997 봄호, p. 5.

<표 1> 그로테스크 메이크업

표현 / 이질적 요소의 종류	외적 표현	내적 표현	궁극적 의미
키치적 요소	화장품이 아닌 모조품, 기성품, 일상적인 소재 등 키치 오브제 사용	전통적 메이크업 재료에 대한 거부	인간 + 이질적 요소 ↓ 부조화, 비정상, 왜곡, 극단, 과장 ↓ 웃음과 공포 재미와 혐오 ↓ · 세기말적 불안 표현 · 부정적인 현실비판, 치유 · 전통적 미개념의 전도 · 인간존재의 총체성 모색
기계적 요소	반짝이, 펄 등 메탈아미지의 실버 또는 화이트 메이크업	비인간화 하이테크화 우주적 이미지	
동물적 요소	야생동물의 뿔 파충류의 타액 전설 속의 동물	인간의 원초적 · 동물적 본능 표현, 신비감, 환경보호	
악마적 요소	뱀파이어의 송곳니, 피 악마의 뿔 인조손톱 검정색 매니큐어	삶과 죽음, 불멸성 위험, 악, 무가치 자본주의의 모순	

Ⅳ. 결 론

형식과 소재의 두드러진 대조, 이질적 요소들의 융화되지 않은 혼합, 우스꽝스러우면서 동시에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파라독스의 힘을 지닌 그로테스크는 현실과 비현실을 동시에 표현하면서 현실의 폐단을 폭로하는 특징을 지닌 양식으로, 시대적인 과도기나 전환기의 사회 · 경제 등의 영향아래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미개념이다.

세기말을 맞이한 1990년대 후반의 혼란한 현실을 반영하듯 문화 · 예술 전반에서 그로테스크가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예술형식의 하나인 메이크업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현대 메이크업에서는 메이크업의 형태와 소재와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요소들이 도입되어 신체의 왜곡, 과장에 의한 일련의 부조화, 불일치적 현상을 통해 웃음, 놀라움, 환멸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후반 메이크업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메이크업 패턴에 이질적으로 결합된 요소들을 키치적 요소, 기계적 요소, 동물적 요소, 악마적 요소로 범주화하여 그로테스크 현상을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키치적 요소가 도입된 메이크업은 화장품이 아닌 모조품, 기성품, 그리고 일상적인 소재 등 키치 오브제를 이용해 메이크업함으로써, 고상하고 품위있는 세련된 멋을 추구하는 메이크업을 거부하고 부조화와 유치함으로 웃음을 유발한다. 이는 전통에 대한 거부감의 표현으로 자극적이고 저속한 색채와 산만하고 값싼 소재 등을 사용하여 현대 문명의 나태함을 충격적인 자기표현으로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기계적 요소가 도입된 메이크업은 인조인간과 같은 기계적 냉기와 미래적 이미지를 전달하는 반짝이, 펄 등 실버 또는 화이트 칼라의 메이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의상 소품을 통해 기계적인 이미지를 배가시키고 있다. 이는 인간존재의 가치상실과 기계의 인격화라는 상반된 아이러니를 통해 인터넷을 매개로 한 사이버 시대의 도래를 표현하는 동시에 인간의 소외를 치유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
3. 동물적 요소가 도입된 메이크업은 야생동물의 뿔, 파충류의 타액, 전설 속의 동물을 표현하여 반인반수의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동물

의 의인화, 인격화는 동물의 원초적 본능을 드러내어 신비롭고, 야수적인 동물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인상적인 비유를 통해 우회적으로 인간의 가식적인 허상을 지적하고, 인간을 둘러싼 메이크업의 전통적인 미관념을 전도시키고 있다.

4. 악마적 요소가 도입된 메이크업은 불멸성, 죽음, 위험, 악, 초능력과 힘 등을 특징으로 하는 악마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뱀파이어의 송곳니, 피, 악마의 뿔, 인조손톱, 블랙 칼라의 메이크업을 연출하고 있다. 이는 혐오스러운 악마를 통해 시대적, 사회적 부조리와 자본주의의 모순을 부각시키고, 팟기없는 뱀파이어를 이용하여 인간성을 더욱 극화시킴으로써 인간 삶의 본질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1990년대 후반 메이크업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현상을 네 가지 이질적 요소를 중심으로 고찰한 결과, 그로테스크 메이크업은 신선한 충격을 원하는 대중의 욕구와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크리에이터들의 의도가 부합된 메이크업 광고와 디자이너 컬렉션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세기말적 불안을 표현하고, 혼란한 현실을 비판 · 치유하는 동시에 인간존재의 총체성을 모색하려는 의도가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간의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메이크업에서 그로테스크한 패턴들이 나타남으로써, 미 (美), 숭고, 섬세 등 메이크업을 둘러싼 일련의 전통적인 미개념을 해체하고 추를 미의 영역으로 수용하는 전위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김선호, <Der Besuch der alten Dame>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의 기법,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박재현, 프리드리히 뒤렌마트의 소설 『고장』에 나타난 카니발적 그로테스크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서승미, 현대 키치이미지 패션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신창규, 뒤렌마트 희극의 근본구조로서의 그로테스크,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이경덕, 신화로 보는 악과 악마, 서울: 동연, 1999.

이정후,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나타난 불확정성,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이혜림, Thomas Mann의 초기단편에 나타난 그로테스크현상,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1988.

조은별, 20세기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주은우, 『세기말의 공포대중문화, 그리고 <X파일>, 불가해한 세계의 은유』, REVIEW 10, 1997.

최정화, 현대 패션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복식 40호, 1998, 9.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 예술의 비인간화, 박상규 역, 서울: 미진사, 1988.

Clayborough, Arthur, *The Grotesque in English Literature*, Oxford: Clarendon, 1965.

Guinn, Jeff & Grieser, Andy, 살아있는 뱀파이어를 찾아서, 조미옥 역, 경기: 엘테크, 1998.

Larson, Bob, 록음악의 사탄적 현상, 주홍근 · 이종전 역, 서울: 예루살렘, 1989.

Lewis, Lawson A. *The Grotesque in Recent Southern Fiction*, Ann Arbor: UMI, 1964.

Ligget, John, *The Human Face*, New York: Stein and Day, 1974.

Thomsen, C.W., *Das Groteske in enslischen Roman des 18. Jahrhunderts, Erscheinungsformen und Funktionen*, Darmstadt, 1974.

Thomson, Philip, The Grotesque, 김영무 역,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동아일보, 1999, 12, 19.